

새정치 경선 불참 천정배는 어디로...

■ 뜨거워지는 4·29 광주 서울 보선

김성현·김하중·조영택 '3파전'... 14일 최종 확정

‘국민모임’ 후보 물색 속도...재야 ‘시민후보’도 관심

4·29 광주 서구 을 보궐선거전이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서구 을 보궐선거 후보를 공모한 결과 김성현 전 민주당 사무처장과 김하중 중앙당 법률위원장, 조영택 전 국회의원 등 3명이 등록했다.

그동안 공천 신청 여부로 관심이 모아졌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새정치연합 후보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공천 경쟁은 3파전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7일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4·29 재·보궐선거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경합하면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자를 공천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3명의 치열한 경선전이 예상된다.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50%,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 50%의 비율로 진행된다. 아직 경선 시행세칙은 결정되지 않은 만큼 권리당원 50% 반영은 현상 투표로 진행될지, 전화 ARS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유권자 50% 반영은 여론조사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일 서류심사, 3일 면접, 14일 경선의 순으로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이같은 경선 원칙에 따라 이번 재보선에서 특정 인물의 전락공천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가칭 ‘국민모임’ 쪽도 후보 물색에 속도를 내고 있고, 광주지역 재야세력과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범시민 후보 추대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모임’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광주를 방문한 자

리에서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를 추천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매주 광주를 방문해 훌륭한 후보를 추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국민모임 후보의 1대1 구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재야 진영도 최근 ‘4·29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대항할 범시민후보 추대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의당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외한 야권 연대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민모임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간 후보 단일화 등 연대가 추진될 지 주목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천 전 장관의 향후 거취 문제도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거리다. 천 전 장관이 탈당

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서구를 보궐선거는 ‘다자구도’가 되면서 치열한 혼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에서 ‘제2의 이정현 바람’을 노리고 있는 새누리당은 후보 영입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성 전 광주시장 사무처장이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하고 표발을 누비고 있지만, 중앙당은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동녕 기념관 방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6주년 3·1절을 맞아 1일 충남 천안을 찾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초대 의장을 지냈던 이동녕 선생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전당 특별법

막판 ‘빅딜’ 할까

경제활성화법과 협상 가능성

‘2월 임시국회’가 이를 뒤 막을 내리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4월 임시국회로 무더기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여전히 반대파 심하고 더욱이 다른 법안과 ‘딜’(거래)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 여야가 이번 국회의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역시 적용 대상 확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위험 논란마저 있다는 지적이 국회 법제 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1일 오후 늦게 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했고, 법제사법위는 3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여서 여야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들도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박원주 원내대변인은 “문화전당 특별법은 이미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 다른 말을 한다”면서 “의료 영리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이나 민생 경제로 포장한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빈손 국회’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 경우 여야가 서로 추진하는 법을 ‘빅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여야가 일부 경제활성화법과 아득법 개정안 처리를 맞바꾸고 김영란법은 다음 국회로 넘기는 시나리오도 정치권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박주선 의원 오늘 ‘의정보고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광주 동구·사천) 의원은 2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선거구민들과 당원, 이선순 동구의회의 의장, 조세철·임택 시의원, 조승민·김성숙·홍기환·전영원·조기춘·박대현 동구의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다.

박 의원은 이날 의정보고회를 통해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한 노력과 국회 차원의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등 광주의 지역현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시재생활성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입법 지원과 활동, 그동안 확보한 국비 예산 현황 등 지역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지역민들에 보고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민과 국가의 밝은 내일을 열고자 희생과 헌신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 왔으며, 앞으로 국민과 지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진력을 다 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의정보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과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승용 최고 “문재인 친노중심 인사 노골적”

새정치 조직사무부총장 한병도 검토에 확대간부회의 불참 강력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친노(친노무현계)’ 당직 인선으로 잠시 주춤했던 계파 갈등이 되살아나고 있다.

문 대표가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노로 분류되는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을 임명한 데 이어 조직사무부총장에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부부장을 지낸 친노 인사인 한병도 전 의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노 진영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 지난 25일 문 대표의 수석사무부총장 임명 관철에 반발하며 회의를 박차고 나왔던 주승용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확대간부회의

에도 불참하면서 항의의 뜻을 이어갔다. 또 문 대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2일 최고위원회 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작정이다.

주 최고위원은 1일 “모든 것을 떠나 문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계파의 기억’도 안 나오게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일주일 만인 지난 15일 김 의원 얘기를 했다”면서 “수석사무부총장, 전략기획위원장, 조직부총장은 공천 때 일선에서 지역실사와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요직이다. 이는 (앞으로 공천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저는 전대에서 ‘당 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적극 돕겠다. 그렇지만, 당 대표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공약한 사람으로, 지금은 분명 문 대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또 “누구를 챙기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며 “그런데 저쪽(친노)에서는 며칠 동안 서울과 여수 사무실로 ‘문 대표 발목 잡지 말라’는 전화를 계속하는 등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불쾌해 했다. 이어 “문 대표가 지금까지도 전화 한 통 없다”며 “이는 협의도 않고 인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최고위원이 문 대표에게 ‘남은 조직사무

부총장 자리는 최고위원들에게 양보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김현미 대표 비서실장에게 전했다. 문 대표는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사무부총장은 전국 246곳의 지역위원회 총괄하며 사무총장, 수석사무부총장과 함께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요직이다.

지난 2010년 순학규 대표 시절 조직부총장을 지냈던 최광용 극동대 교양학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새정치연합 중간당직 인사’가 더 중요한 이유는 “이러는 제목의 글에서 ‘당의 관행은 중요성 때문에 조직부총장을 대표가 챙기고, 수석(사무)부총장은 수석최고위원이, 재정부총장은 그 후순위 최고위원이 추천하는 식이었다’며 “이 관행을 깨뜨리는 인사에 대한 전직 사무총장 출신 주 최고위원의 반발은 그래서 타당하다”고 가세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비즈니스호텔

광주 상륙!!

남구창이전 원로
광주제2차하철(순환선) 백운역 확정
백운고가로 철거후 지하화 확정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봉선동 3지구 개발 진행중
주거시설(타워60대)확보

백운광장 활성화가 기대되는 향후 투자지 1순위 지역

8층 (120명)	중식당, 한식당, 뷔페당
7층 (120명)	개인병원 의원, 스카이라운지
6층 (120명)	비즈니스 호텔
5층 (120명)	비즈니스 호텔
4층 (120명)	비즈니스 호텔
3층 (120명)	비즈니스 호텔
2층 (120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1층 (240명)	상가4동, 개인의원, 약국, 편의점, 식당, 피부및사시, 한의원, 판매시설, 참치전문점
지하1층 (240명)	스포츠및사시, 유희/단란주점, 노래방, 오락실
지하2.3층 (240명)	사우나, 7080라이브, 나이트클럽, 클럽

긴급임대

국제비즈니스호텔

구.백운동 국제관광호텔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21세기 산업개발 **010-2112-323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목회자심리상담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교육, 말씀, 기도, 상담
행복한 목회현장!!**

광신대학교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사모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심리상담사, 가정사역상담사, 도형상담사 자격 취득!!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5년 3월 2일 ~ 12월 중순(약 10개월)
- 교육일시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오전 9:00-1:20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 원서접수시 전형료 : 10,000원

원서접수 현재 접수중

문의할 곳 062)605-1112, 1023

광신대학교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 교육일시 : 2015년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혜택 :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문의할 곳 062)605-1063, 1112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광신대학교